



우리가 '에이핑크' 여동생! 평균 연령 만 17세의 7인조 신인 걸그룹 위클리가 당찬 출사표를 던졌다. 6월30일 서울 마포구 한 공연장에서 데뷔 쇼케이스를 연 위클리는 "밝은 에너지가 우리의 강점"이라며 "나이는 어리지만 실력은 어리지 않다"고 밝혔다. 데뷔 앨범 '위 아(We are)'는 평범하면서도 매일 특별한 10대 소녀들의 일상과 건강한 에너지를 담았다. 위클리는 핑키한 팝댄스 스타일의 타이틀곡 '태그 미(Tag Me @Me)'로 활동을 시작한다. 김종원 기자 won@donga.com

KBS 화장실 몰카 개그맨 구속

'개그콘서트' 연습실이 입주한 KBS 건물 화장실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개그맨 A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6월24일 KBS 공채 개그맨 A씨를 성폭력처벌법(카메라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 위반 혐의로 구속한 뒤 30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서울 여의도 KBS 연구동 건물 여자화장실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다. A씨는 경찰이 5월29일 해당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용 보조배터리 모양의 불법 촬영 기기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 시작하자 6월1일 새벽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관련 기기와 A씨가 제출한 휴대전화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뒤 구속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수사 사항은 2차 피해 우려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KBS 측도 "현재로서는 방송사 차원에서 어떤 입장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One pick 핫 플레이스

남양주 '라테르프로미즈' 소녀시대도 반한 그 카페

'미녀들의 수다' 장소로 적합한 듯하다. 소녀시대 멤버 겸 연기자 최수영이 평소 즐겨 찾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 '수스토리'를 통해 여러 번 공개해 유명해졌다.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라테르프로미즈라는 곳으로 한적하게 드라이브 하기도 좋고, 스물웨딩과 가족모임 등을 하기 편하다고 알려졌다. 넓은 정원과 엔틱 장식물이 가득한 실내공간이 돋보인다. 최수영은 최근 자신의 애완견과 함께 '마실'을 다녀온 후 사진을 SNS에 공개해 또 한 번 화제를 모았다. 팬들은 한가롭게 여유를 즐기는 수영의 모습에 "보는 것만으로 힐링이 된다"라는 반응을 보내고 있다. 앞서 이곳에서 소녀시대 멤버들이 스타일리스트 등 지인들과 함께 작은 파티를 열기도 했다. 야외 정원에서 하얀색 원피스를 곁에 차려입은 모습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처럼 보인다. 이정연 기자

이순재 갑질 논란 2라운드

“노동위 제소” vs “명예훼손” 법적대응

(폭로 매니저)

(이순재 측)

다른 매니저들 “그럴 분 아니다” 김씨 “가족이 일 시켰다” 또 폭로 매니저 근무 환경 점검 목소리도



이순재

배우 이순재(85)가 전 매니저에 대한 '갑질' 논란에 휘말렸다. 이순재가 이를 부인하고 또 다른 전 매니저들 역시 이순재 편에 서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연예계 일각에서 때때로 불거진 갑질 피해의 또 다른 사례인지 관련 당국이 조사에 나선 가운데 이를 계기로 '연예매니저'라는 직업군의 근로환경과 관련한 구체적인 점검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머슴 노동” VS “과장된 주장” 이순재의 전 매니저 김모씨는 '머슴 노동'을 주장하고 나섰다. 김씨는 6월29일 SBS '8시 뉴스'를 통해 "두 달 동안 일하

면서 이순재 부인이 쓰레기 분리수거, 생수통 운반, 신발 수선 등 허드렛일을 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말을 포함해 단 5일을 쉬었으며, 주당 평균 55시간 일하는 동안 180만원의 월급만 받았다"고 말했다. "4대 보험 가입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부당 해고됐다"는 주장까지 내놨다.

이에 대해 이순재는 6월30일 "일부 개인적인 일 등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사과했다"면서도 김씨의 주장이 과장됐

고 밝혔다. 이어 "김씨 채용과 해고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근로계약 문제 등과 관련해서는 "회사(에스지웨이엔터테인먼트) 측과 논의하라 했다"고 해명했다. 에스지웨이엔터테인먼트는 "관련 보도는 많은 부분 사실과 다르게 왜곡돼 편파적이다"면서 이순재가 "60년 동안 쌓아올린 명예를 크게 손상시켰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일부 전 매니저들도 SNS 등을 통해 이순재가 "사람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분이 아니다"는 등 그를 적극 옹호하고 나서면서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이에 김씨 역시 이날 이순재 가족의 사소한 일을 해야 했다든 또 다른 '폭로'를 이어갔다. 김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관련 주장을 제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매니저도 노동자...정확한 근로계약서 중요” 이번 논란은 연예계 일각에서 불거져

온 일부 매니저들에 대한 회사나 연예인의 갑질 의혹을 상기시키며 관련 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시선을 낳고 있다.

노무법인 위백의 합용일 공인노무사는 "김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매니저로서 수행 업무 범위에서 일부 벗어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이순재 및 에스지웨이엔터테인먼트와 김씨가 채용 당시 어떤 내용의 근로계약을 맺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전제에서다.

합노무사는 이어 "연예인을 밀접하게 수행한다는 업무적 특성이 있지만, 매니저도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노동자라는 인식이 중요하다"면서 "매니저라는 업무 특성상 요구되는 야간근로나 연장근로 등 업무 수행 방법에 대해 법적 테두리 안에서 회사(연예인)와 노동자가 정확히 합의해야 잠재적인 불만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진화'하는 배우 출신 감독들의 연출력

정진영 '사라진 시간' 18만 관객 현장경험 바탕 노련함 최대 장점

정진영의 감독 데뷔작인 영화 '사라진 시간'이 선전하면서 배우들의 연출현장 진출에 대한 관심이 새삼 높아지고 있다. 2005년 방영진의 '오로라공주' 이후 박종훈, 하정우, 유지태, 김윤석, 문소리 등이 감독으로 이름을 올렸다. 대중적으로 크게 흥행한 작품을 쉽게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기지만, 이들은 배우 특유의 섬

세한 감성으로 대체로 호평을 받으며 보폭을 넓혀왔다.

6월18일 개봉한 '사라진 시간'은 29일 현재까지 누적 18만2000여명(이하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의 관객을 불러 모았다. 제작비 15억원 규모로, 손익분기점인 27만 관객 돌파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영화계는 향후 IPTV 등 부가판매 및 해외 판권 판매 등을 포함하면 무난히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방영된 감독의 '오로라공주'와 하정우 감독의 2012년 다큐멘터리 '577프로젝트' 등도 제작비 대비 성공작

으로 꼽힌다.

김윤석 감독이 지난해 선보인 '미성년'과 문소리 감독의 2017년작 '여배우는 오늘도' 등은 완성도면에서 크게 호평 받았다. '사라진 시간'과 '오로라공주', 유지태 감독의 2013년 연출작 '마이 리틀 히어로'도 마찬가지다.

다만 상업적 성공의 기준에서 대체로 기대에 다소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도 없지 않다. 그럼에도 영화계 안팎에서 배우들의 연출 데뷔를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호의적이다. 하정우 감독의 '허삼관'과 '577프로젝트' 제작에 참여한 장원석 비에이엔터테인먼트 대표는 "배우 출신답게 연기력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가 넓고 깊다"면

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노련함도 갖췄다"며 이들을 바라본다. 상업적 아쉬움에 대해서는 "소재나 이야기의 상업성이 다소 낮을 수는 있겠지만 완성도와는 별개의 문제다"면서 "배우들의 연출 시도가 늘어나는 추세여서 향후 더욱 다양한 층위의 연출력을 보여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배우들의 연출작 가운데 대규모 제작비 영화가 없다는 점도 눈에 띈다. 한 투자배급사 관계자는 "감독으로서의 신인이라는 점에서 연출력에 대한 검증과 관련해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면서 "배우로서 지닌 감성을 기반으로 스토리에 더 집중하려는 경향이 크다"고 밝혔다. 윤여수 기자

뇌가 색시해지는 하루 두뇌게임

강주현의 퍼즐월드

위 정사각형 안에는 1~9까지의 숫자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들을 사용해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 스도쿠문제

		9	7	4				
	7		3	2		1		
5			6	4				3
	9	8				3	5	
7								1
	2	3				7	8	
3			7	9				8
	5		8	3		9		
		7	6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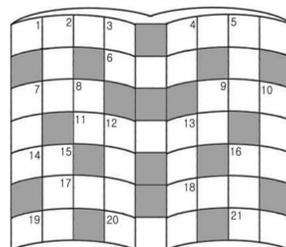
■ 스도쿠정답

1		9				8		2
	5		9		6		1	
6			8					9
	3		5				4	
		5	1		4	3		
	1			3			5	
5			1					6
	9		6	3		8		
4	1				2		3	

■ 스도쿠정답

4	8	1	5	9	2	7	6	3
9	2	6	3	7	8	4	5	1
8	2	5	6	1	7	9	3	4
6	8	7	9	5	4	2	1	3
1	7	2	8	6	3	5	9	4
5	1	9	4	3	8	6	2	7
2	9	7	1	4	5	6	3	8
8	3	4	2	1	6	9	7	5
7	5	3	9	8	1	4	2	6

■ 낱말문제



■ 가로열쇠

01. 뜻한 바를 이루어 만족한 마음이 얼굴에 나타난 모양. 04. 지위가 높고 훌륭한 벼슬. 06. 산과 산 사이의 골짜기를 흐르는 물. 07. 이름을 적지 않음. 09. 갑작스러운 사고나 위

험을 풍선이나 음향 따위를 이용하여 알리는 장치. 11. 1945년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끝난, 일본과 연합국 사이의 전쟁. 14. 무예를 닦는 곳. 17. 우리나라의 건국을 기념하는 국경일. 18. 밤에도 대낮같이 밝은 곳을 이르는 말. 19. 갑자기 많이 내리는 눈. 20. 어지간히 많은 수. 21. 솟불을 담아 놓는 그릇.

■ 세로열쇠

02.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려 수평으로 이동시키는 기계. 03. 별을 가리기 위해 쓰는 우산 모양의 큰 물건. 04. 바둑이나 장기 따위에서 수가 높음. 05. 우리나라의 대학가에서 내붙이거나 걸어 두는 큰 글씨로 쓴 글. 07. 사람이 살지 않는 섬. 08. 말리면 북여가

되는 대구과의 바닷물고기. 09. 같은 목적에 대하여 이기거나 앞서려고 서로 겨룸. 10. 피곤할 때에 몸을 쭉 펴는 일. 12. 분위 화폐에 포함된 순금의 양을 늘리거나 하여 통화의 대외 가치를 높이는 일. 13. 중풍으로 온몸을 마음대로 쓰지 못함. 15. 길고도 세차게 잘하는 말솜씨. 16. 사회나 조직 등의 기능을 활발하게 함.

■ 낱말정답

단어 이어가기: 낱말을 풀 다음 가운데줄을 세로로 읽으면 책 제목이 됩니다.

西	風	吹	雨	降	雲	飛
風	雨	雲	飛	雲	飛	雲
飛	雲	飛	雲	飛	雲	飛
雲	飛	雲	飛	雲	飛	雲
飛	雲	飛	雲	飛	雲	飛
雲	飛	雲	飛	雲	飛	雲
飛	雲	飛	雲	飛	雲	飛
雲	飛	雲	飛	雲	飛	雲
飛	雲	飛	雲	飛	雲	飛
雲	飛	雲	飛	雲	飛	雲